

칠레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7. 10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0
V. 종합의견	12

칠레

I. 일반개황

면적	757천 Km ²	GDP	1,420억 달러(2007년)
인구	16.47백만 명(2007년)	1인당 GDP	8,657달러(2007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Peso(Ps)
대외정책	경제실리외교	환율(달러당)	530.28

- 남미 대륙 남서부 태평양연안 국가로 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인구는 약 16백만 명이며, 인종은 백인과 원주민의 혼혈인 메스티조가 66%, 백인이 29%, 원주민이 5%로 구성되어 있음.
- 피노체트 군부독재(1974~1989) 이후 국민화합을 중시하는 점진적이며 온건한 민주화를 추진함에 따라, 중남미에서 가장 안정된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풍부한 광산자원, 임산자원,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부국이며, 자유주의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하면서 1990년대에 연평균 6.5%의 경제성을 달성하는 등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양호한 경제성과를 달성함.

II. 경제 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e
경제성장률	4.0	6.0	5.7	4.0	6.1
재정수지 / GDP	-1.5	2.3	5.6	7.1	8.0
소비자물가상승률	2.8	1.1	3.1	3.4	4.8

자료 : IFS, EIU

□ 경제성장세 지속

- 2000년 이후 국제 銅 가격 상승과 미국 및 EU와의 FTA 체결, 지속적인 금리인하 등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수출과 내수가 동반 회복되면서 경제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 2004년에는 세계경제 호조와 국제 銅 가격상승에 따른 수출증가와 민간소비 및 투자 회복으로 6%의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며, 2005년에도 최대 수출품목인 구리 시세가 연중 63%나 상승한데다 투자 및 소비 증가에 힘입어 5.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2006년에는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비용 증가 및 세계최대 동 광산인 Escondida에서 한 달간 파업이 지속된 여파로 4%의 다소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그러나 2007년 들어 동 생산이 정상화되고 연초 예상과는 달리 동 가격의 강세 지속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상반기에 5.9%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고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금년 전체로는 6.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연초 전문가들은 2007년 평균 구리가격이 파운드당 2.5 달러 수준(2006

년 구리가격은 파운드당 3.0달러)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중국 발 원자재 수요 증가의 여파로 구리가격 강세가 지속되어 연 평균 가격은 오히려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파운드당 3.2~3.5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최근 물가 상승세로 전환

- 물가는 경기 활성화에 따른 내수 증가와 에너지 가격 상승 영향에도 불구하고 폐소화 강세와 정부의 긴축통화정책에 힘입어 최근 수년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왔음.
- 그러나 금년 들어 아르헨티나의 천연가스 수출물량 축소로 연료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세로 전환됨. 연료 가격이 전년대비 5배나 상승함에 따라 운송비와 식료품 가격이 크게 올라 금년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최근 4년간 가장 높은 1.1%를 기록하였으며, 8월 현재 12개월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중앙은행 물가 목표 상한선인 4.0%를 상회하는 4.7%를 기록하였음. 이로 인해 금년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재정수지 흑자규모 확대

- 재정수지 흑자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2004년에는 정부 재정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銅의 국제가격 상승과 경제 활성화로 인한 세수 확대로 재정수지가 흑자(GDP의 2.3%)로 전환되었으며, 2005년에는 GDP의 5.6%로 흑자규모가 확대되었음.
- 2006년에도 재정수지 흑자가 GDP의 7.1%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금년에는 銅의 국제가격이 연초 예상과 달리 강세를 지속함에 따라 재정수지 흑자 규모는 GDP의 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칠레 정부는 銅 수출로 인한 재정수입 증가에 힘입어 교육, 주택, 보건 등의 사회 및 인프라 부문에 대폭적인 정부지출 증가를 추진하고 있음.

2. 경제 구조 및 정책

□ 구리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아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취약

- 구리, 과일 등 광산물, 농산물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아 국제 원자재 및 농산물 가격 변동에 취약함.
- 지난해 칠레의 총수출액 581억 달러 중 56%인 323억 달러가 구리 수출이 었음. 최근 수년간 銅의 국제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높은 수출신장률을 기록하였으나, 가격이 다시 하락할 경우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음.

□ 제조업 기반 취약

- 수입자유화 등 급진적인 시장개방으로 국내 제조업이 성장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던 칠레는 광업 위주의 1차 산업 중심에서 제조업의 발전단계를 건너 뛰어 바로 3차 산업 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라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함.

□ 전력난 극복을 위한 해결방안 모색 필요

- 2005년 말 현재 칠레의 총 전력 생산용량은 11,983MW로, 이중 43%인 5,181MW가 아르헨티나에서 공급된 천연가스를 이용한 화력발전임. 그러나 아르헨티나가 자국의 에너지난으로 인해 2004년 이후 천연가스 공급을 일방적으로 축소함에 따라 최근 수년간 전력난을 겪고 있음.
- 칠레 정부는 해상을 통한 천연가스 수입을 위해 중부지역에 액화천연가스 공장설립을 추진 중이며, 볼리비아와 천연가스 공급 협상을 시작하는 한편 다수의 화력발전소 프로젝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당분간 산업용 전력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부존자원 풍부

- 칠레는 전 세계 동 매장량의 1/3을 보유한 세계 최대의 동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며 요오드, 몰리브덴, 초석, 리튬 등 광물자원이 풍부할 뿐 아니라 이들 자원이 지표면에 가까이 매장되어 있어 채광의 경제성까지 갖추고 있음.

□ 지형학적 장점 보유

- 칠레는 남북으로 4,000km를 넘는 해안선이 태평양에 접해 있고 긴 해안선을 따라 일찍이 형성된 항구를 보유하고 있어 아시아로의 진출도 용이하여, 중남미와 아시아태평양 국가를 연결하는 무역허브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지정학적 장점을 지니고 있음.

□ 경제개방 지속으로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안정되고 견실한 성장세 지속

-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가 종속이론의 영향으로 수입대체 경제정책을 추구한 반면 칠레는 1973년 피노체트가 집권하면서부터 시장경제 체제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음.
- 정부 주도의 성장정책을 탈피하여 시장원리에 기초한 민간 주도의 성장정책을 추구함으로써 경제성장, 고용, 국내저축과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대규모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져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양호한 경제성과를 보이고 있음.
- 거시경제 안정과 더불어 정부 규제의 투명성, 의사결정의 예측가능성 등이 칠레경제의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환경, 국가경쟁력, 경제자유지수, 부패 등 각종 국가순위 지표가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양호함.
 - 세계은행의 비즈니스 환경순위 : 28위/175개국(2006년)
 - 다보스 포럼(WEF)의 국가경쟁력지수 순위 : 27위/125개국(2006년)
 - 헤리티지 재단의 경제자유지수 순위 : 11위/161개국(2006년)
 -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 순위 : 20위/163개국(2006년)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e
경 상 수 지	-779	2,074	1,449	6,838	7,200
경 상 수 지 / G D P	-1.1	2.2	1.1	3.7	3.3
상 품 수 지	3,723	9,585	10,775	22,587	23,653
수 출	21,664	32,520	41,267	58,486	67,644
수 입	17,941	22,935	30,492	35,899	43,991
외 환 보 유 액	15,211	15,495	16,689	19,225	16,695
총 외 채 잔 액	43,515	42,779	45,014	48,239	49,339
총 외 채 잔 액 / G D P	59.1	46.1	39.1	34.4	35.8
D. S. R.	26.9	25.1	17.3	13.8	9.9

자료 : IFS, EIU

□ 수출호조 지속

- 최대 수출상품인 銅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칠레의 총수출 규모는 2003년 217억 달러에서 2006년에는 581억 달러로 3년 간 2.68배 증가하였음. 2007년 상반기 수출실적도 전년대비 20% 증가한 344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금년 전체로는 66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o 2007년 상반기 수출실적 344억 달러 중 광물 수출은 221억 달러로 총 수출액의 64.2%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 구리수출은 194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56.4%를 차지하였음.

□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대규모 흑자 지속

- 銅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최근 수년간 상품수지와 경상수지가 대규모 흑자를 지속하고 있음.
- 상품수지 흑자규모는 2003년 37억 달러에서 2006년에는 222억 달러로 3년 간 6배가 증가하였으며, 2007년 상반기 상품수지 흑자규모도 145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금년 전체로는 25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상품수지 흑자규모 확대에 힘입어 경상수지도 2004년에 GDP의 2.2%인 21억 달러의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2005~06년에도 각각 GDP의 1.1%인 13억 달러와 3.7%인 53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함. 금년 경상수지 흑자규모도 지난해와 비슷한 53억 달러(GDP의 3.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외국인직접투자 대폭 증가

- 2003년 이후 내수경기 회복, 미국, EU, 한국, 중국, 일본 등과의 FTA 체결 등으로 유럽과 아시아 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전력, 용수 등 인프라 부문에서 활발한 M&A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FDI 유입액은 2003년 43억 달러에서 2006년에는 8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07년에는 1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

□ 폐소화 강세 지속

- 수출호조로 인한 외환보유액 증가 등에 힘입어 폐소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음. 2003년 평균 691폐소였던 대미달러 환율은 2006년 530폐소로 3년간 약 23% 절상되었으며, 금년에도 530폐소 내외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 대외지급능력 양호

- 2006년 말 현재 총외채 규모는 GDP의 33% 490억 달러로 다소 과다하나, 중장기외채가 총외채의 84.8%로 양호한 외채구조를 나타내고 있음.
- 수출증가로 인해 2003년 28.7%였던 DSR도 2005~06년에는 각각 15.4%와 9.3%로 크게 낮아지는 등 외채원리금 상환부담은 크지 않음.
- 2007년 7월 현재 외환보유액이 상품수입의 5.3개월분인 184억 달러에 달하고 있고, 수출호조와 FDI 유입 지속으로 외환 유동성이 풍부하여 대외 지급능력은 양호한 수준임.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 및 국제관계

□ 안정적인 정치체제 유지

- 칠레는 실용주의적 중도 정치와 사회적 합의에 의한 문제해결의 전통이 확립되어 있고, 다수정당이 난립하고 있으나 각 정당은 여당인 중도좌파 연합(Concertacion) 또는 야당인 중도우파연합(Alianza)에 소속되어 양당제 성격의 안정적인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2005년 12월 대선에서 바첼렛(Michelle Bachelet) 대통령 당선

- 2005년 12월 대선에서 사회당 출신의 바첼렛(Michelle Bachelet) 前 국방장관이 승리하여 2006년 3월 11일 칠레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취임함. 이로써 중도좌파 여당연합(Concertacion)은 1990년 이후 4회 연속 집권에 성공하였음.
- 한편, 집권세력인 여당연합은 상하원 모두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원 120석 중 65석, 상원 38석 중 20석)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 집행력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됨.

□ 자유주의 경제정책 기조 유지

- 온건한 사회주의자인 바첼렛 대통령은 사회당의 신좌파(Nueva Izquierda) 출신으로서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제도의 개혁을 주창하고 있으며, 주요 경제부처 각료에 친기업적 인사를 임명하는 등 기존의 시장중시 자유주의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주변국과 원만한 관계 유지, 활발한 통상외교 전개

- 미국, EU 등과는 FTA 체결 이후 경제통상관계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외교적으로는 친서방주의를 표방하고 있음.
- 인접국인 아르헨티나 및 페루와 에너지 및 운송 네트워크 통합을 확대하

고 국경무역 및 투자를 증진하기 위한 경제협력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다만, 2004년 중에는 아르헨티나 에너지 위기에 따른 대칠레 가스 수출 축소로 발전용 천연가스의 100%를 아르헨티나로부터 수입하는 칠레가 전력난을 겪으면서 양국간 갈등을 빚은 바 있고, 좌파 정부가 집권한 인접국인 볼리비아, 페루와의 국경문제가 잠재적 갈등요인으로 상존하고 있음.

2. 사회 및 소요사태

□ 빈곤층 지속적으로 축소

- 칠레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빈곤층 축소를 위한 정책 추진으로 절대 빈곤층이 1987년 총인구의 17.4%에서 2000년에는 5.7% 그리고 2006년에는 3.2%로 크게 감소되는 등 여타 중남미 국가들과 달리 빈곤문제가 진전을 보이고 있음.
- 소득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지니계수 값도 2000년 0.58에서 2006년에는 0.54로 소폭 개선됨.

□ 고용사정 및 사회적 동질성 양호

- 2001년 이후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사정 악화로 실업률이 일시 상승한 바 있으나, 중남미 국가들 중 가장 양호한 고용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007년 현재 실업률은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6.8% 수준임.
- 인구의 90%가 백인 및 메스티조이고, 주민의 85%가 카톨릭 신자로 높은 사회적 동질성을 나타내고 있어, 인종, 종교간 분쟁 가능성은 매우 낮음.

□ 소요사태 발생 가능성 낮음

- 여당연합(Concertacion)내 좌파진영이 바첼렛 정부의 자유시장 경제정책 및 사회복지 정책에 반발하는 한편, 이에 동조하는 노조 및 학생 시위가 발생하였으나, 소요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음.

- 2006년 5월에는 지방재정 차이에 따른 교육 불평등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대규모 고등학생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바첼렛 대통령이 학생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함에 따라 시위사태가 종결됨.
- 2007년 8월에도 노조 주도로 연금 인상 및 교육 여건 개선, 의료 및 주택 서비스 개선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였음.

IV. 국제신인도

1. 주요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 순위

- OECD: 2등급(06. 6) → 2등급(07. 6)
- Moody's: Baa → A2(06.7)
- S&P: A(04. 1)
- Fitch: A(05. 3)

□ 각종 신용평가기관에서 투자적격 등급 부여

- 칠레는 효과적인 재정, 통화정책, 정부의 투명성, 금융부문 안정 등을 이유로 S&P와 Moody's, Fitch로부터 중남미에서 가장 높은 A, A2, A 등급을 부여 받고 있음.
- 특히, S&P와 Moody's 등 양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등급을 부여 받고 있는 중남미 국가는 칠레와 멕시코뿐임.

2. 주요 ECA의 인수태도

- US EXIM: 최고 부보율 적용
- ECGD: 최고 부보율 적용
- Hermes: 단기 전액인수 가능

3. 외채상환태도

□ 해외자금조달이 원활하며, 외채상환태도 양호

- 1982년에 중남미 외채위기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정부가 보증하지 않은 민간은행 외채 67억 달러의 지급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는 등 대외신인도 유지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여 왔음.
- 1985~90년 사이 채무주식화 방식(debt-equity swap)으로 외채를 재조정하여 약 100억 달러의 채무부담을 경감한 바 있음.
- 신흥시장 외환위기 여파로 한 때 해외차입비용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현재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며, 외채상환태도가 양호하고, 1990년 이후 IMF의 자금지원을 받지 않고 있음.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우리나라 최초의 FTA 체결 국가로 FTA 체결 이후 대칠레 수출증가세 지속

- 2003년 FTA 체결 이후 대칠레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 대칠레 수출은 FTA 발효 직후인 2004년에 36.9% 증가한 데 이어, 2005년에도 63%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2006년에도 36%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 그러나 구리의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구리수입 증가로 우리나라가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고, 2005~06년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각각 11억 달러와 22억 달러를 기록함.

□ 21세기 공동번영을 위한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에 합의

- 2004년 11월 노무현 대통령의 칠레 국민방문시 한국과 칠레간의 교역 투자 증진은 물론, 정보통신, 과학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21세기 공동번영을 위한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함.

- 경제, 통상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기반 마련을 위해 '한-칠레자원협력 위원회', '한-칠레 IT 협력센터' 및 산업기술협력기금 등을 설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관계 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V. 종합 의견

- 칠레는 銅의 국제가격 상승과 주요국과의 FTA 체결 등에 힘입어 수출호조가 지속되고 있고, 민간소비와 국내외 기업의 투자 증가로 양호한 경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여야간 합의에 기초한 안정적인 정국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고, 빈부격차, 치안, 부정부패 등에 대한 우려도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아 정치, 사회적 안정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됨.
- 銅 수출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아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이나, 재정흑자목표제, 물가목표제 그리고 자유변동환율제와 같은 제도적 경제안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양호한 국제 신인도와 대외지급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당분간 경제가 안정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종전등급을 유지코자 함.

문의 : 전문연구원 이은경 (☎ 3779-6676)

E-mail : twoek1982@koreaexim.go.kr